

배포 일시	2022. 7. 20.(수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	책임자	과장 배석주 (044-201-3835)
		담당자	사무관 박균성 (044-201-3843)
			사무관 심형석 (044-201-4996)
보도일시	2022년 7월 2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1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현대·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(리콜) - 총 2개사 2개 차종 4,135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현대자동차(주), 비엠더블유코리아(주)에서 제작 또는 수입·판매한 총 2개 차종 4,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한다고 밝혔다.
- 첫째, 현대자동차(주)에서 제작, 판매한 더뉴 펠리세이드 4,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(약 25km/h)에서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에 들어간다.
  - 해당 차량은 7월 21일부터 현대자동차(주)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(소프트웨어 업데이트)를 받을 수 있다.
- 둘째, 비엠더블유코리아(주)에서 수입,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63대(판매이전)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고,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에 들어간다.
  -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(주)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(소프트웨어 업데이트) 후 판매 예정이다.

□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,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\*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.

\* 자동차제작자들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(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)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(☎ 080-600-6000), 비엠더블유코리아(☎ 080-700-8000)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(PC [www.car.go.kr](http://www.car.go.kr), 모바일 [m.car.go.kr](http://m.car.go.kr), 연락처 080-357-2500)를 운영하고 있으며,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## 참 고

## 리콜 대상 자동차

### 현대자동차(주)

대상 자동차(더뉴 팰리세이드)	결함장치(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)
	

차명(형식)	결함장치	제작일자	대상대수
더뉴 팰리세이드(LX2 PE)	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	'22.05.04. ~ '22.07.12.	4,072
합 계			4,072

### 비엠더블유코리아(주)

대상 자동차(218d Active Tourer)	결함장치(보행자 보호 장치 소프트웨어)
	

차명(형식)	결함장치	제작일자	대상대수
218d Active Tourer	보행자 보호 장치 소프트웨어	'21.03.20. ~ '22.07.08.	63(미판매)
합 계			63

※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